

# IT주 끌고 배당주 밀고... 올 코스피 최고 2410

## 2020 증시전망

코스피 예상등락범위 1960~2410  
실적 바닥론에 상반기 상승 분석  
하반기 변동성 확대에 '상고하저'  
반도체 업황 반등세 강해질 것

올해 코스피지수는 최고 2410까지 상승할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해 말 종가(2197.67)를 감안하면 최대 9.7%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기준금리(연 1.25%)를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이다. 올해 증시 유망업종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업종이 꼽히고 있다. 반도체 주가 증시상승을 견인할 것이라 분석이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와 일정한 배당이 가능한 리츠가 유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본시장 투자에서 주식, 채권, 상품순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 ◆ 코스피 예상 밴드 1960~2410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큰 기저효과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가 2400선까지 무난히 다다를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의 최대 수혜국으로 올해 신흥국 이익 모멘텀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이어지며 고배당주에 대한 인기

### <증권사별 올해 유망업종>

증권사	2020년 유망업종
NH투자증권	반도체, OLED,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한국투자증권	IT, 콘텐츠, 5G, 유틸리티
삼성증권	IT, 소프트웨어, 미디어, 호텔/레저, 의류
신한금융투자	반도체, IT, 은행주
하이투자증권	소프트웨어, 자동차, IT, 조선, 유틸리티
메리츠증권	리츠, 배당주
키움증권	반도체, IT, 5G

는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2020년 주식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는 1960~2410 선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1909.71~2248.63(종가 기준) 사이에서 움직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순환적 측면에서 상반기 경기는 반등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승 잠재력이 높지는 않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120조원을 예상한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강도와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017~2018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코스피 상승 여력은 10% 이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변동성도 커질 것

###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증권사명	예상 등락 밴드
NH투자증권	제시하지 않음~2400
한국투자증권	1960~2370
삼성증권	1950~2350
신한금융투자	2000~2400
하나금융투자	2050~2450
KB증권	1950~2400
메리츠증권	2000~2500
대신증권	1900~2480
신영증권	1850~2350
키움증권	1900~2250

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단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경기 둔화 우려와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며 연초에는 상승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돼 코스피는 1900~225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 상승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 얘기다.

연말로 향할수록 기초체력(펀드네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들이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반등이 2020년 내내 계속 이어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망업종,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증권가에선 한해 주주들 첫 번째로 반도체를 꼽고 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전체 이익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했다. 반도체 이외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자동차, 운송,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조선 등이 증시 회복을 이끌 유망 업종으로 꼽혔다.

유망업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예상은 대개 비슷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반도체 업황 반등세가 강해질 것"이라며 "생산 증가와 함께 반도체와 ICT 업종의 출하-재고 사이클도 반등이 시작됐다. 관련 업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도 반도체에 주목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이익률이 반등한 반도체 기업과 화장품 같은 소비주가 국내 주식시장을 함께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무형투자에 가세하면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과 국내 기업 실적 발표에서 재고 감소가 시작된 점이 향후 가격 상승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 일부 타결을 단행하는 등 주변 여건 또한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바닥 확인 과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업종과 콘

텐츠, 유틸리티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 업종은 기저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것이며, 콘텐츠 업종은 5G 및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범으로 수요 증가가, 유틸리티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실적 개선이 각각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 상반기엔 해외주식보단 국내주식

전문가들은 IT 중심의 매수 전략을 추천했다. 영업이익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투자 사이클이 반등함에 따라 투자 관련 경기민감 산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4차 산업혁명 투자의 핵심 중간재는 반도체이므로 반도체 중심 IT 업종이 강세를 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기에 민감한 성장주와 배당주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해외주식보단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장기 급등으로 조정 가능성이 커진 미국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했다.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위험자산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분석이다. 박재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 중 예선 하일랜드 채권이 예상 성과가 가장 높다"며 "구리자산도 미·중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주목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자산간 선호도는 주식, 채권, 상품 순"이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현대건설, 6130억 카타르 타워 단독수주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새해 첫 날 해외수주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현대건설은 2일 카타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주한 총 약 6130억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wj964@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는 카타르 루사일 시티 금융지역 일대에 지하5층에서 지상 70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4개월로 2022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존 디지털기획팀을 부서로 승격해 디지털 자산관리 전반과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강화를 도모기로 했다. 또 플랫폼 Biz부와 플랫폼개발부를 신설해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인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 운영을 유기적으로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전략부와 DT(Digital Transformation)추진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부·점장 인사는 금성원 FICC운용본부장, 안석철 GIS본부장, 윤창용 리서치센터장 등 내부 인재 등용을 통해 성과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성과 중심 개편

GIB·GMS 부문 경쟁력 강화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보호 강화와 글로벌투자금융(GIB)·그룹투자운용사업부(GMS) 부문 경쟁력 강화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지난 12월 30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독립 선임했다. 또한 상품감리팀을 부서로 승격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품감리 기능을 확대했다.

또 GIB와 GMS 부문의 경쟁력을 강

## “투자자 수익실현 위해 상품 늘릴 것”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 증권·파생상품 개장식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을 위해 투자 상품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

정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행사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츠, 채권, 고배당 주식 등에 기반한 인컴형 상장지수상품(ETP)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직접투자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진입 체계는 이전보다 명료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금융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장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상장 기업에게도 충분히 제공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실적회복도 여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불투명하며 가계부채 증가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 및 업계와 보조를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정치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 등을 이용한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정보저장소(TR)를 연내에 차질 없이 가동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구조화 증권에 대

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정보도 확대된다. 정 이사장은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품질을 개선하고 환경·사회 관련 정보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사회적투자(SRI) 채권을 위한 전용 섹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정보 제공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